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2.7~2016.12.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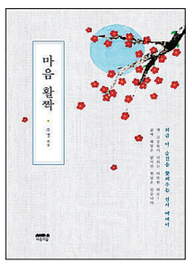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2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3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5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6	불교를철학하다	이진경	한겨레출판
7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8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9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10	대방광불화엄경강설48(여래십신상해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高僧 禪詩 통한 치유… "삶에 해답 없지만 현답 있어"

마음활짝

주경 스님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5천원



"천길 벼랑 끝 나뭇가지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없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국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과 비움만이 미덕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야 최선의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으니까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中에서

숲속을 지나가는 청량한 바람 같은, 맑은 샘물 같은 책 한 권이 출간돼 슬프고 우울한 우리 마음을 환하게 씻어준다. 고승들이 쓴 선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꽃피우는 이야기 〈마음 활짝〉이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서산 부석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불교신문사 사장으로 재직중인 주경 스님〈사진〉이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염불과 경문을 배울 때, 한문 게송들을 외우며 그 뜻을 생각하다보면 가슴 뭉클해 질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염불곡조가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났으며, 가슴은 한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웠다"고 고백한다.

어느 시대에나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백성들은 궁핍한 마음에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왔다. 그때마다 수행 하던 고승들이 시로 마음을 다스리고 슬기롭게 삶을 대처해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은유와 역설로 이루어진 선시에는 고승들의 깨달음이 응축돼 있다. 이 책에 실린 선시들 역시 짧은 시 한 편으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현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오랫동안 즐겨 읽던 고승들의 선시를 모아 이야기를 붙인 선시 에세이이다. 인정하면 깨닫게 되는 순간의 소중함, 비우고 버릴수록 채워지는 행복,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 고되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쉼,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연습,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성찰까지 삶에서 중요한 화두 여섯 가지를 모두 담아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으라고 우리네 등을 토닥여주는 〈마음 활짝〉을 만나보자. 국가와 대통령에 상처 난 마음부터 개인의 웅크려진 마음까지 치유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저는 매일 얼굴과 몸을 씻을 때 마음도 함께 닦아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화 냈던 마음을 이 물과 함께 씻어내겠다. 너무 욕심이 많고 과한 생각, 혹은 잘못 판단한 것들을 몸과 함께 씻어내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집안 곳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묵은 먼지가 켜켜이 내려앉기 마련이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에도 먼지가 쌓인다. 타인의 시선과 관점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타인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 우리 마음에는 수북이 티끌이



쌓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라고 권한다.

마음에 낀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홉을 갖고도 열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자. 모든 일을 좋다, 나쁘다, 그르다, 옳다 이분법으로 결론 내며 자신을 괴롭힌다면 며칠쯤 그 상황과 생각들을 묵혀두자. 지난 일을 잊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면 하나씩 적어보자. 그리고 쓸모없는 나머지 생각들도 하나씩 지워보자.

저자인 주경 스님은 옛 고승들이 쓴 선시를 통해 고단한 삶에 지쳐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준다. 구체적인 실체와 삶의 현장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강조한다. "불의를 참으며 스스로와 타협하고, 길이 아니라도 참고 건너기 일쑤입니다. 코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념을 버린 적은 없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마이웨이'가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밝은 사회와 건강한 정신으로 향하는 '따뜻한 신념'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책에 소개된 64편의 선시에는 옛 고승들의 깊은 사색이 그대로 농축돼 있다. 선시는 희망의 은유이며 깨달음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선시를 읽으며 고승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고, 그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진리의 꽃을 피운 시대의 스승들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과 행복은 물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조언도 함께 전한다.

마음에도 표정이 있다. 그 표정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마음이 찡그린다면 삶은 고단함과 괴로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마음이 활짝 웃는다면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옛 고승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선시로 마음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한다. 삶에 해답은 없지만 현답은 있다. 그 현답을 지금 책 속에서 만나보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詩 감상 두 편

識淺名高世危亂(식천명고세위난) 아는 것은 얕은데 이름만 높고 세상은 어지럽고 위태롭구나
不知何處可藏身(부지하처가장신) 어느 곳에 몸을 숨겨야할지 알 수가 없네
漁村酒肆豈無處(어촌주율기무처) 어촌과 주막 어디 몸을 숨길 곳 없으리오마는
但恐匿名名益新(단공익명명익신) 다만 이름을 숨길수록 더욱 알려질까 두렵네

〈경허선사〉

春有百花秋有月(춘유백화추유월)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
夏有凉風冬有雪(하유량풍동유설)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若無閑事掛心頭(약무한사괘심두)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便是人間好時節(편시인간호시절)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무문선사〉

꾸준히 염불하면 누구나 왕생

아미타경 핵심강의

정종 법사 법문 | 정전 옮김 | 운주사 펴냄 | 1만 3천원



〈아미타경〉은 예로부터 불문(佛門)서 가장 보편적으로 독송되는 것이자 정토불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이 선을 종지로 표방하면서 정토불교가 많이 위축됐으나,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정토가 매우 왕성했다. 전국 큰 사찰마다 정토만일염불회가 결성됐고, 〈아미타경〉을 비롯한 여러 정토 서적이 사찰 곳곳서 판각돼 유통되었으며, 염불해 왕생한 사례들도 수두룩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현대까지 정토불교가 거의 끊어짐 없이 이어져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더욱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중국의 웬만한 선종사찰조차 저녁예불에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염불을 하는 곳이 많다. 이는 〈아미타경〉이 불교 내에서 대중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고래로 이 경전의 핵심적인 몇몇 구절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서 해석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아미타경〉서 왕생의 올바른 원인(正因)을 설명하는 단락으로, 주로 '소선근(少善根)' '일심불란(一心不亂)' '심부전도(心不顚)'라는 세 구절에 집중돼 있다. 이 책은 현재 중국서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에 입각한 순수정토 법문을 왕성하게 펼치는 정종 법사가 이 핵심 단락들을 대중에게 법문한 내용을 엮었다. 그는 철저히 경전과 조사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더불어 이론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비유를 더하여 상세하고 분명하며 간단명료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

이 책은 크게 서론과 본론과 총결의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서론에는 〈아미타경〉의 핵심 경문을 소개하고, 경문을 해석함에 있어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관련 경문과 회통해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며,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에 의거하여 해석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힌다. 잘 알다시피 선도대사는 중국 당나라 초기에 정토종을 창립해 누구나 하기 쉬운 칭명염불을 통한 범부의 극락왕생을 주창함으로써 정토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전파한 정토종의 조사이다.

이어서 본론을 핵심 경문에 따라 5가지로 나누었다. 이들 각각의 경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일관되게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에 입각해 해석한 점이다. 이를 위해 해당 경문을 이치와 비유로써 설명하고 다른 경전과 논서, 조사들의 해석, 그리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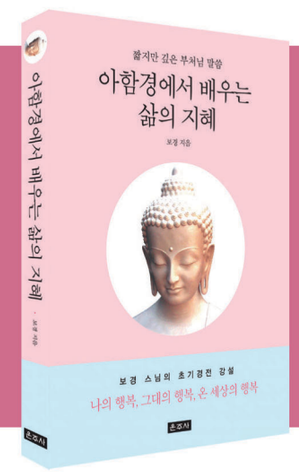
그래서 이 책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꾸준히 염불하면 누구나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미타경〉의 핵심사상이며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의 본의라는 것이다.

예컨대 '일심불란'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선정의 상태 혹은 염불삼매를 얻어야 일심불란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해석돼 왔다. 만약 '일심불란'이 정말 염불삼매를 얻는 경지라면 소수의 뛰어난 근기의 사람을 제외한 일반 범부는 일심불란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설해진 타력문이자 이행도인 정토법문은 오히려 자력의 수행이요 난행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선도대사의 사상에 입각해, 일심불란이란 선정이나 삼매의 상태가 아니라, 오로지 한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전념하는 데 2가지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수행력이 없고 근기가 하열하며, 죄를 지은 범부라도 아미타불의 타력에 의지하여 깊은 신심을 지니고 한결같이 염불하면 누구나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흔히들 정토법문은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고, 현세의 이익이 아닌 사후세계를 위한 법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좀 더 고상한 법문을 찾아다니며 남들이 하기 힘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근기가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함을 인정한다면, 범부의 신분으로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원음에서 배우는 지혜와 행복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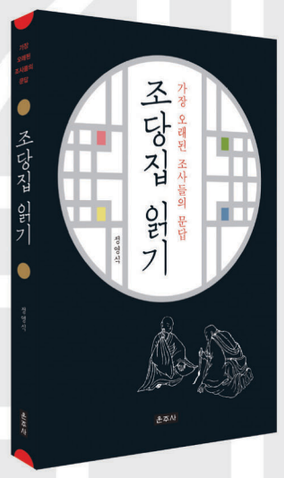
짧지만 깊은 부처님 말씀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하루에 한 편, 아함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에 맞게 되살린 보경스님의 초기경전 강설!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시대를 아우르는 동서양 고전, 철학과 문학을 넘나드는 사유와 성찰!

보경 저 / 국판 / 372쪽 / 16,000원



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조당집 읽기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어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다.

이 책은『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과 어구는 물론이고, 다른 선어록들을 참고하여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일화,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하였다.

정영식 저 / 신국판 / 352쪽 /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